

# 한국사회 인식론의 방법론적 대안

장 피아제 지음 「구조주의의 이론」

사회과학을 위시한 한국의 인간과학은 기능주의·과학주의·실증주의·행태주의의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주로 미국식 연구방법의 산물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미국식 연구방법의 부적절성과 함께 토착적 방법론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 대안의 하나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조주의적 방법론이다. 이 책은 통칭적인 의미의 '구조주의' 일반에 관한 안내서이다. 지금까지 구조주의에 대한 문학, 인류학, 언어학, 철학 등의 단편적인 소개서와 달리 이 책은 구조주의 일반이론을 다룬다.

여기서 소개되는 구조주의적 방법론이 얼마나 한국사회의 인식에 적실하며 토착적 방법론의 개발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아직 의문이기는 하다. 그러나 본격적 구조주의-주로 사회과학적 구조주의-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 1960년대의 프랑스와 현대 한국사회는 상당한 유사점을 갖는 것 같다. 물론 지리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 모두에 적실한 방법론이 존재할 수 없음은 지극히 자명하다. 그러나 드골의 보수·우익 정권, 좌파의 과격화와 사회주의 국가의 모순노정, 각 이념정당의 무능과 학생, 지식인의 역할 증대, 기존의 인식론에 대한 각계각층의 회의 등으로 요약되는 당시 프랑스의 배경은 현대 한국사회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구조주의는 특히 한국사회 인식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정치경제학적 사회과학, 국가론적 사회과학, 비판이론적 인간과학 등의 방법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각종의 이념운동-제야의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 학생

운동, 통일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에 핵심적인 인식론을 제공하고 있다. 어쨌든 학문적이고 실제적인 두 가지 모두가 구조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역사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인가 아니면 그것을 둘러싼 비가시적이고 복잡한 제약요인으로서의 구조인가? 구조주의가 제기하는 이러한 핵심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직까지는 다분히 절충적이다. 우리는 이 절충에 대해 찬찬히 재검토해야 하는 지점에서 서 있는 것이다.

## 송영숙

서울 동작구 동작동 61-11번지 학원강사

##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위해 진보적인 사회과학자들 내부에서는 소위 '사회성격'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 왔다. 그동안 이 논쟁의 한쪽 편에서 있던 PD 진영에게 제기되었던 비판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교조의 과잉과 실물 분석의 결여"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비판에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내용은 목차와 관계없이 크게 네가지 주제의 시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조선말 봉건사회의 동요와 해체속에서 자본주의의 맹아가 발생·발전해오지만, 갑신정변의 실패, 갑오 농민전쟁의 패배를 결정적인 계기로 하여 자립적인 자본주의적 발전 전망이 상실되고,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

됨으로써 자본주의가 이식형으로 발전하여 가는 식민지자본주의의 시기이다.

둘째, '해방'을 계기로 식민지자본주의를 청산하고자 했던 민중의 지향이 토착지배세력을 대신하여 등장한 미군정에 의해 압살되고, 식민지자본주의가 신식민지자본주의로 재편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식민지자본주의의 유산으로 이월된 귀속재산의 불화와 농지개혁, 그리고 대량의 원조를 물질적 기초로 하여 종속적인 재생산구조가 형성된다.

셋째, 50년대말 신식민지자본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갈등의 귀결로 60년대 초 등장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성장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종속적 축적의 본격 전개속에서 국내 독점자본을 강화·발전시키는 과정이다. 60년대말~70년대 초의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와 독점자본의 단일메카니즘이 현실화되고 70년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일반이 완성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70년대말~80년대 초의 축적위기를 매개로 과학기술혁명 독점을 통한 세계초국적 자본의 재편구도와 맞물려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실물분석의 정확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시도 자체가 이들 진영에게는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논의가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

## 장춘학

경기도 부천시 중구 원미동 164-5. 회사원

## 「작은 것이 아름답다」

1970년대 이래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소위 '신좌파'운동의 본령은 첫째, 반공해, 생태보호 환경운동 둘째, 대안적인 공동체 운동 셋째, 진정한 약자를 위한 다양한 인권운동 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들 세가지 운동 자체가 모두 당시(지금도 마찬가지) 서구의 산업화된 문명자체를 비판하는 논의를 그 뿌리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문명에 대한 비판의 최초핵심은 바로 '무한한 생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기존의 가치체계-여기에는 좌파와 우파 모두의 가치체계가 포함된다-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슈마허의 이 책은 1970년대 서구인들에게 이러한 비판이론의 백미로 받아들여졌다.

슈마허는 이 책 전체를 통하여 첫째, 무한한 생산력 발전을 옹호로 여기는 무방항적이고 맹목적이며 동물적이기까지 한 가치체계를 바꿀 것 둘째, 이를 위해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추구하고 적정 규모의 소비와 생활수준을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수립할 것 셋째, 현실 경제의 대안으로 '대규모 기술' '대량 생산' 대신 '중간 기술' '소규모 생산'의 새로운 경제학을 수립할 것 넷째, 노동에서의 소외와 인간의 근원적인 소유 욕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유와 생산관계를 도입할 것 등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폐쇄사건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 자본주의적 대량 생산체계-그것도 개방경제체제로 수립되는-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 그리고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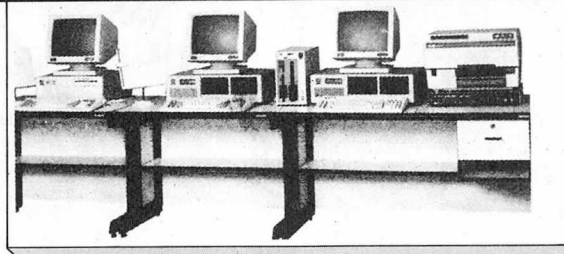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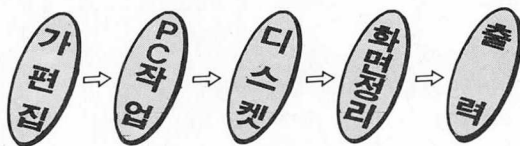
## 출판의소식

### 출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돕겠습니다.

#### 사식비를 줄이십시오!

PC로 입력하신 원고도  
디스켓만 주시면 교정지나 인화지로  
처리해 드립니다.

####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하십시오.



기획/편집/디자인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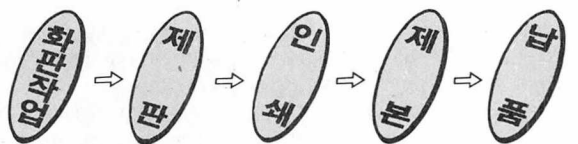
## M 밀알문화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231-2  
TEL. 268-5991/279-2626 FAX 268-5991

#### 전산 및 출력시스템

- 편집기능이 다양하며 화면에서 편집이 가능
- 작업기능이 신속하여 다량의 원고처리 가능
- 서식, 도표, 그래프 등 그래픽 기능과 이미지 처리 가능
- 한글, 한문, 일어, 영어 등과 서체, 굵기 등을 자유선택
- 교정지(300, 600 LBP)로 교정후 인화지로 출력가능
- 인화지 출력이 불필요한 경우 포지필름으로도 출력가능
- 카다록 등 고급 인쇄물제작 위해 수동식자기 보유

카렌다 / 카다록 / 박스 / 학위논문 / 식순지 / 사보 및  
월간지 / 각종 안내장 / 단행본 및 전집류 / 각종 홍보물제작



생활양식과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때 우리는 슈마허의 선제적인 문제제기의 예언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소유'나 '욕구'가 아니라 '삶 그 자체'와 '정의로운 동기'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든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삶 그 자체의 문제와 중요성과 정의로운 동기의 개발, 확대는 소외된 인간이기를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활로를 개척하는 데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 주기화

영등포구 문래2동 35번지, 회사원

## 브와예의 「조절이론」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위력이 소련의 노 혁명전사들까지 굴복시킨 가운데 진행되는 작금의 세계변화는 어떤 의미에서든 '놀라운' 것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웅변하는 책이 한국에 번역되었는데, 바로 프랑스의 신경경제학 사조를 대표하는 '조절이론'이다.

조절이론이라 불리는 경제학 사조가 태동된 것은 1970년대 중엽이었다. 프랑스인들이 당시에 문제삼기 시작했던 주제는 한마디로 "자본주의라는 괴물의 숨결이 왜 이토록 모질고도 긴 것일까?"였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동력에 대한 고전적인 분석들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론, 현대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론이라 불리는 것이지만, 이 이론을 갈고 다듬어 온 소련의 과학 아카데미 이론가들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서구의 '발달된'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그 '모범'을 어떻게 따라 배울 것인가를 밤낮으로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 이론들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편의 코메디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인들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든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들 신경경제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조절이론에 대한 총괄적 소개를 위해 씌어졌다. 이들 학파의 개념과 방법, 도달점과 문제점, 급후의 과제 등이 비교적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조절이론의 역사와 현실, 그것의 핵심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 들도 없는 좋은 안내서이다. 이 책의 의의에 관해서 혹자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비유하여 '조절이론가 선언'이라 부를 정도이다.

한편 조절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그 비판은 주로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정선동 씨의 편역 과정에서 비판 논문으로 일본 공산당 계열의 이론가 山田正隆의 논문이 '보론'으로 실리게 된 것 같다.

## 박상용

경남 충무시 봉평동 189-5, 회사원

## 라즈니쉬의 「배꼽」

그 나라 내부의 민족분규와 정치적인 갈등으로 요즘들어 외신을 타고 자주 뉴스시간에 언급되는 나라가 있다. 중앙아시아의 큰땅덩어리 자체인 인도를 말하는데, 같은 아시아권이면서도 사실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은 별반 없는 편이다. 그러나 대략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인도라는 나라는 워낙 날씨가 더워서- 이곳의 더위감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명상에 젖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기후를 가진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인가? 세계적 종교의 한 확인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요가의 본고장일뿐더러 神의 종류가 많기로도 아마 세계 제일인 성실다. 또 神마다 없어져 있는 신화 또한 얼마나 많으며, 우주에 대한 기상천외한 설명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런 분위기 탓인지 정신적인 지도자집단으로 일컬어지는 현자들도 적지 않은 것 같고, 그들의 행적이나 명상의 결과들 또한 가지각색이다.

얼마전 동화वाद 비슷한 인도의 한 현자의 이야기집이 출판계를 강타한 이래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고, 또 그 호응도 만만찮은 것 같다. 도서출판 장원에서 출간한 오쇼 라즈니쉬의 「배꼽」(박상준 역)도 이런 흐름 속에서 선보인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쇼 라즈니쉬(1931-1990)는 인도사람으로 철학을 전공했고, 바가바드 기타를 비롯한 종교경전을 가르친 사람으로 이솝처럼 웃음 속에서 진리를 알려려 한다. 「배꼽」은 오쇼 라즈

니쉬의 10여권의 저작들 중에서 옮긴이가 가려뽑아 모은 이야기들로 새롭게 편집된 책이다. 그 구성은 이솝우화처럼 재미있고도 짙막한 이야기가 먼저 소개된 다음 그 이야기에 빗대어서 저자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서술하는 방식으로 씌어 있다. 그래서 읽기에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재미도 있다. 게다가 덧붙여서 바쁜 일상생활의 틈바구니 속에서나마 잠시라도 삶이나 우주, 진리, 죽음, 존재, 종교 등 가히 형이상학적 물음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지적인 호기심을 끌어당길 뿐 아니라 그 욕구까지도 충족시켜주는 듯하다.

“생각, 사고에 몰두해 있는 사람은 제각기 자기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 생각, 사고란 이렇다. 언제나 핵심을 놓친다. 실재를 만나려 할 때 사고, 생각은 다리가 아니라 장벽인 것을.” 이런 구절을 접하면서 한번씩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배꼽」은 한마디로 현대의 일상인의 독서에 대한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만한 책이다.

## 이광식

인천시 중구 주안5동 11-28 45/3, 회사원

## 만화홍보그룹



만화홍보

현대기획

TEL. 335-3357

■ 하는일 : 각종 만화홍보책자/기업문화 상품광고/카타로그·팜플렛/정치홍보물/출판물 컷 등

## 만화로 익히는 직장인의 예절



4×6배판 160쪽 본문 2도인쇄 값5,000원  
 ● 단체구입시 표지에 상호, 회사로고 넣어드림  
 ● 단체주문, 책문의 (02) 323-4483  
 (교보문고, 을지서적, 종로서적 및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총판 : 진명서적 272-5871)

직장인의 고운 맵시  
 바른말씨는 곧 그 회사의  
 품격이며 얼굴입니다!!

### 주요내용

직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 / 기본자세와 동작  
 바로고 요령있는 대화예절 / 교양있는 직장인의  
 매너 / 친절하고 세련된 전화응대 / 신뢰받고 친근감  
 있는 고객응대 / 옷차림 몸치장 요령 / 요령있는 출  
 장, 해외여행 / 현대인의 식사예절 / 세계의 매너와  
 에티켓 / 호칭 인사예절 / 스포츠 매너 / 공공예절 / 경  
 조사 / VIP에 대한 예절

도서출판

현대미디어

TEL. 323-4483 338-2779

FAX. 334-7958